약사정사, 대학생 전법·지역복지 선도한다

창건 15주년 맞아 (사)원명 창립
10월 15일 법당서 창립법회 봉행
경상대 불교학생회에 장학금 전달
상봉동 지역 어르신들에 만발공양

성낙두 경남지사장



약사정사가 개원 1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원명'을 창립했다.

진주 약사정사가 개원 15주년을 맞아 대학생 전법과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공동체 '사단법인 원명'을 창립했다.

10월 15일 진주 약사정사 대법당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서는 진주 국립경상대 불교학생회인 연화회에 장학금 전달과 진주시 상봉동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도시락 나눔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약사정사 주지 진여 스님은 연화회에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사)원명 창립을 맞아 진주시 상봉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150개를 만발공양했다.

주지 진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규모가 작은 약사정사 도량에서 15년간 환하게 법등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동고동락한 불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상 감사하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이에게 이익된 일만 하고 살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늘 중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육바라밀을 몸소 실천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창립된 (사)원명은 지금까지 약사정사가 진행한 인재불사와 복지불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약사정사가 진주 지역 불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절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솜이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회 회장은 "약사정사에서 후원해주신 장학금으로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가 창립될 수 있었다. 우리 대학을 시작으로 창원국립대도 불교학생회가 창립됐고, 경남대와 진주보건대에서 불교학생회 창립이 준비 중"이라며 "경남 지역 대학생 포교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약사정사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배인엽 상봉동 동장은 "창건 15주년을 맞은 약사정사는 상봉동 주민들을 위해 만발공양과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전달, 백미 나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역 내 노인들과 기초수급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동장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된 (사)원명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상봉동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나눔 만발공양을 할 예정이다.

개산 1221주년 해인사, 개산조·역대 조사 선양

10월 16일 일원서 법회 · 다례재
방장 원각 스님 등 총림대중 참여
국화 전시 등 개산 문화행사 다채


해인사가 10월 16일 개산 1221주년 기념법회와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개산 1221주년을 맞아 개산종조 순응 · 이정 양대조사와 개산초부터 해인사에 주석한 역대조사 스님들에 대한 다례재를 봉행했다.

해인사(주지 혜일)는 10월 16일 경내 대적광전과 조사전, 비림에서 개산 1221주년 기념법회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등 해인총림 대중들과 김윤철 합천군수, 각급 내외빈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개산 1221주년 기념법회는 삼귀의, 원각 대종사의 헌향, 혜일 스님의 헌다, 내외빈 헌화, 불전예경, 고유문 낭독,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혜일 스님은 개산 1221주년 고유문을 통해 "신라, 고려, 조선 등 여러 왕조가 바뀌고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그 오랜 세월 속에서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해왔다"며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나라와 민족과 불교를 위해 헌신해 온 개산종조와 역대조사들의 위법망구한 원력과 수행 교화를 본받아 언제나 청백수행가풍이 살아있는 대적광토 해인삼매 도량이 되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부처님에게 고했다.

한편, 해인사는 10월 27일과 28일 제63회 해인사 보살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해인사 개산 기념 국화 전시회는 10월 29일까지 해인사 일주문 일대에서 진행되며 '소릿길을 걸어 해인사를 열다' 행사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열렸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음식 만들며 우수성 체험해요"

강진 백련사, 10월 14일 사찰음식 경연대회


사찰음식의 화려한 경연이 남도사찰 1번지에서 펼쳐졌다.〈사진〉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는 10월 14일 경내에서 '제3회 만덕산 백련사 차와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사찰음식의 맛과 의미를 뽐냈다.

백련사와 (사)홍승스님사찰음식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경연대회에는 10개 팀이 사전에 음식을 만들어 사찰음식의 품격을 보여주는 전시경연에 참여했고 일반인, 학생(초당대, 영산대, 광주대 등)으로 구성된 8팀은 직접 90분간 열띤 조리를 진행하는 라이브경연을 펼쳤다.

주지 설도 스님은 "음식이 어떻게 내 앞까지 왔을까 생각하고 감사하며 먹는 것, 이것이 사찰음식"이라며 "눈과 입으로만 즐기지 말고 그 음식에 깃든 정신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홍승 스님도 "이번 경연대회는 사찰음식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채식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사찰음식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련사는 행사에 앞서 지난 13일 백련사 만경루에서 팔국사 다례문화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표충사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증식 나선다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와 비단벌레 서식지 보전 연구 협력


밀양 표충사와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가 천연기념물 496호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 증식에 나선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와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센터장 이대암)는 10월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비단벌레 서식지 보전 및 생태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사진〉

양 기관은 △비단벌레의 생리, 생태 연구, 증식 및 복원을 위한 협력 △ 비단벌레 서식지 보전과 증식 개체의 방사를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비단벌레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금선암 제3회 금선보은문화제

효문화 계승과 선양 나서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효문화 계승과 선양을 위한 제3회 금선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금선암 자비공덕회 주관으로 10월 15일 전주시 완산체련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행사는 금선암이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언해'의 전북도문화재 지정을 기념하고 효문화 계승을 위해 마련됐다.

주지 덕산 스님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0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가르침에 따라 삼보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보림사 제2회 대숲길 쉼 음악회

현대인 치유 · 힐링 위해 조성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가 10월 14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2회 대 숲길 '쉼'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산골의 작은 산사까지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함께 음악회를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림사 쉼음악회는 경내 대웅전 옆에 3천여 평 규모의 대숲길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대숲길은 종진 스님이 보림사 주지 부임 후 현대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 조성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암 도갑사, 도선 국사 문화예술제

10월 14일 경내서 개최


풍수지리를 통해 지방 불교문화의 혁신을 이끈 도선 국사(827~898)를 선양하는 문화예술제가 열렸다.〈사진〉

영암 도갑사(주지 수관)는 10월 14일 경내에서 '도선국사 탄신 제1196주년 기념 제18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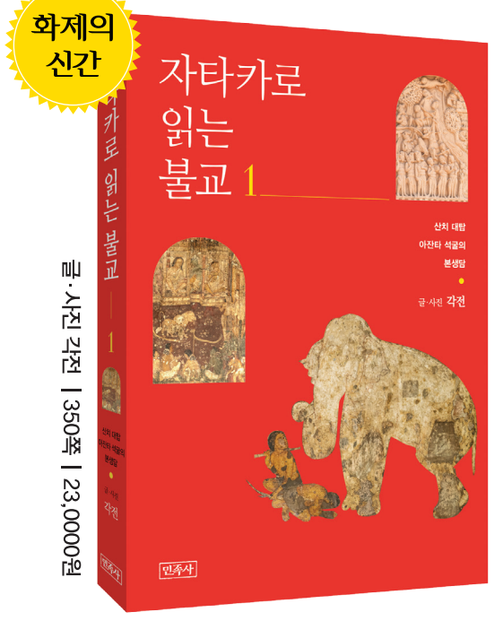
주지 수관 스님은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이 가득하다"며 "화합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